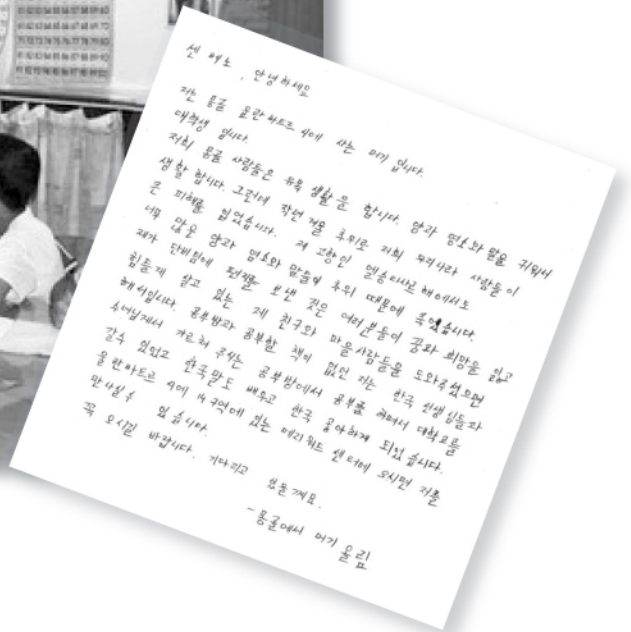




메리워드센터 한국어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머기



## 몽골에서 온 한 통의 편지 제가 받은 큰 사랑 더 많이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MBC <일밤> 단비에서 소개된 몽골 친구 머기를 기억하시나요?

머기는 유년시절 메리워드청소년센터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울란바타르시 외곽에 위치한 바양주르호는 빈민 게르촌이 밀집되어있는 곳입니다. 바양주르호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곳 총인구 235,192명 중 청소년은 71,176명(30%), 청소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빈곤층이 대다수이기에 교과서 구입도 하지 못하며 컴퓨터 등의 기기가 전무한 이곳에 메리워드 CCM도서관과 공부방은 꿈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머기는 메리워드센터가 없었다면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빈민촌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홀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려가기에도 힘든 환경의 머기가 현재 대학공부와 더불어 틈틈이 메리워드센터 공부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기의 전공은 광산경영학입니다. 3차 산업이 열악한 몽골을 위해 자신이 이바지할 것을 꿈꾸며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빈곤 청소년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머기의 꿈입니다. 몽골 사회를 움직이는 소중한 꿈, 이 꿈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작은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개발협력사업 기관인 메리워드청소년센터는 2006년부터 이 지역의 빈곤아동,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다각적인 교육문화활동과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통해 울란바타르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도자 양성, 바양주르호구 빈곤층 교육 역량 강화,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머기 올림  
 -몽골에서 머기 올림

## 별이 떨어지는 몽골 하늘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다

- 띠앗누리 10기 임윤수(안나)

띠앗누리 단원이 되기 전부터 몽골의 넓은 초원과 그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는지 몽골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발대미사 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띠앗누리가 몽골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랑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그곳에 가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오면 되는 것이었다.

몽골은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지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몽골 전체 가톨릭 신자수는 약 700명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항울성당의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서는 몽골에서 10년 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스테파노 신부님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몽골에 모여 가톨릭 전파에 힘쓰고 있다. 그분들의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생활한 유목민 문화센터도 그 중 하나이다. 울란바타르의 주교좌 성당의 모습도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 모양으로 지어 그들이 좀 더 친숙하게 가톨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가톨릭의 존재가 미미하지만 성당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몽골 가톨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종묘드 유목민 센터에서 생활했다. 띠앗누리의 작업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축사의 지붕을 고치는 일, 발의 돌을 골라내는 일, 잡초를 뽑는 일, 소똥인 아르갈과 석탄 찌꺼기를 섞어 연탄을 찍어내는 일 등으로 이루어졌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다들 처음에는 몸이 고단했지만 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갈 즈음엔 모두들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건강한 일꾼이 된 모습이었다. 돌을 골라내 더욱 더 넓어진 밭에서 다양한 야채들이 자라나고, 우리들이 찍어 낸 아르갈 연탄으로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처음에는 가지도 못했던 재래식 화장실과, 따뜻한 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샤워실, 흙과 똥을 구분할 수 없는 땅, 나무는 찾아볼 수 없는 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원, 촘촘하게 박혀 있는 밤하늘의 별, 게르 안에서 드리는 몽골어 미사,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몽골 친구들과까지 모두 그 곳에 두고 떠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생각해보면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미사를 드리며 띠앗누리 모두가 손을 잡아 하나의 띠를 이루었을 그 순간, 그 때 느낄 수 있었던 몽글한 감정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사랑이 아니었을까...



현지일정을 마친 띠앗누리 10기와 몽골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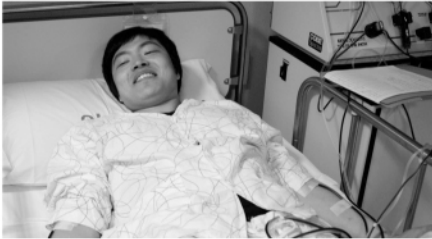
### 사랑의 띠를 이어 온 세계와 하나 되는 '띠앗누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0기가 지난 7월 14~29일의 15박 16일 몽골 현지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단원과 스태프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띠앗누리 10기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청년"이라는 주제로 몽골 종묘드시 유목민 문화센터 등지에서 자원활동을 펼치며 지구촌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체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청년자원활동에는 본부 홍보대사 탤런트 양미경(엘리사벳)씨도 함께 참가하여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는 세상을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친교를 나누며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 우리말입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되어 그 동안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국제청년자원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나눔의 즐거움

- 조혈모세포기증자 김대환



말초혈조혈모세포기증을 하고 있는 김대환 학생

몇 달 전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서 저와 유전자형이 비슷한 환자를 찾아 검사를 받아볼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예전에 학교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고 혈액을 뽑았는데, 그새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행운이 있구나!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순간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의학공부를 하고 있는 의학교인 제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관심 있는 일입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나중에 의사가 되면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얼마 후 정밀검사를 하기 위하여 혈액을 다시 채취하였고 몇 주 후에 환자와 저의 유전자형이 거의 100퍼센트 일치 한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기술도 좋아져서 골수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백혈구 분화주사를 맞은 후에 수혈하듯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또한 매우 적었습니다. 바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자마자 백혈구 분화를 촉진하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병원에 입원해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병상에 누워서 한쪽 팔에서는 혈액을 뽑았고 그 혈액은 조혈모세포를 걸러내는 기계를 지나 각종 수액들과 함께 다른 팔을 통해 다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의 수액이 몸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빼고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편하게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였습니다. 예전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증을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병원에서 관리를 잘해줬으며 또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에게 최고의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혈모세포기증에 관심을 갖고 그 방법을 알고 실천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나눔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의 참여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 및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

####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신청서 작성 후 3ml의 채혈을 통해 나눔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7-2268

#### ■ 후원참여

정기 및 일시후원을 통해서 백혈병·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0년 7월 30일 현재)

####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안내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 신한은행 512-03-004088 / 국민은행 083-01-0309-453
- 농협 386-01-015833 /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국제협력

### 파키스탄 현장방문 실시

8월 4~13일까지 파키스탄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파이살라바드 통합적 지역사회발전 프로그램과 카슈미르 지진피해 이후 지역사회재건 사업의 일환인 직업기술과 농업훈련을 통한 여성경제자력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 G20과 개발에 관한

#### 아태지역 시민사회 워크숍 참여

지난 7월 29~30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와 GCAP 아태가 주최하는 'G20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시민사회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G20 대응 전략을 모색하며 GCAP 간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G20 대응을 위한 공동 입장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한미합동운동본부를 포함한 총 24개 단체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대하여 만들어진 네트워크단체입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 서울축산농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 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 희망 삼겹살 지원

지난 7월 19일 서울 양천구 등촌동에 위치한 서울축산농협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여름캠프 시즌을 맞이하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삼겹살 전달을 통해 따뜻한 사랑 나누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22개 지역아동센터 817명과 지역아동

## 생명운동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상담봉사자 나눔의 전화 15기 전화상담과정 교육·개강미사**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나눔의 전화는 15기 전화상담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7월 21일 개강미사를 시작으로 26명의 상담봉사자는 6개월간의 교육 이수 후, 2011년부터 생명을 수호하는 자살예방 전화상담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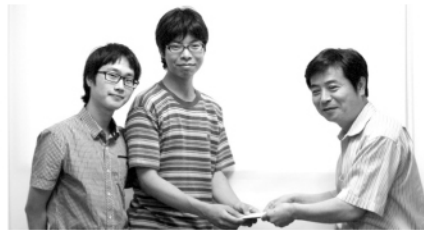
### 7월 생명이눔 캠페인 현황

※ 단위:명

날짜	장소	장기	조혈모
6/25~7/22	한마음한몸장기증센터	125	35
7/9~7/11	제1회 전국생명대회	85	52
<b>총계</b>		<b>210</b>	<b>87</b>

##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립대 가톨릭학생회 비안네,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지난 7월 15일 서울시립대 가톨릭학생회 비안네 학생들이 한미합동운동본부를 방문하여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 66,000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교내 축제 행사에서 공 던지기 게임과 추러스 판매 수익금입니다. 비안네 회장 배근항(암브로시오)군은 "한미합동운동본부와 함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5월 27일에 하기 앞서서 캠페인 홍보와 동시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모금을 함께 벌여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행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당 본부 생명운동부 부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동참한 것이 대단하며 앞으로도 비안네의 사랑나눔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생애첫기부

김태진, 이원희님은 7월 13일 지혁이의 두번째 생일을 맞아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나눔에 감사 드리며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본부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 • 김지혁 이사야

(2008.7.6생 父김태진/母이원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함께하는 사회사목

센터 3곳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캠프 기간 동안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환경사목위원회

#### ▶ 제15회 농민주일 행사

제15회 농민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8일 원주교구 영춘분회에서 본당 활동가와 신자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미사, 마당놀이, 체험마당, 대중놀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양평동 우리농 직매장 축복식

지난 7월 20일 양평동 한신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양평동 우리농 직매장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우리농 직매장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창립40주년 기념음악회 '꿈, 희망으로 피어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 '꿈, 희망으로 피어나다'가 9월 13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아 가톨릭심포니오케스트라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살해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공연장소 명동대성당
- 공연시간 9월 13일(월) 오후 8시
- 입장권 전석 무료
- 예약 및 문의 02-921-5093